

제384회 국회(임시회)

정 무 위 원 회

국민의 내일을 위한 정부혁신

보다나은 **국민권익위원회**

2021년 국민권익위원회 업무보고

2021. 2. 16.



국민권익위원회



목 차



I. 현 황	1
II. 2020년 추진성과	4
III. 2021년 업무추진 여건 및 방향	6
IV. 2021년 핵심 추진과제	8
① 반부패·공정개혁 체감 성과 창출	8
② 사회 전 부문의 청렴성 향상 대책 추진	12
③ 부패·공익신고 활성화 및 신고자 보호 강화	15
④ 신속한 고충해소로 국민에게 힘이 되는 적극행정 추진 ..	18
⑤ 국민의 목소리에 기반한 사회갈등 해결 및 제도개선 ..	22

I. 현황

- ◇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가청렴위원회,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의 3개 기관을 통합하여 출범('08.2.29.)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1 기 능

부패방지

반부패·청렴

- 반부패·청렴 정책 수립
- 청탁금지법,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
-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 공직자 청렴교육

권익구제

고충처리

- 고충민원 처리, 집단민원 조정
- 민원처리실태 확인·평가
- 지방옴부즈만 활성화 지원

신고처리·신고자보호

- 부패·공익신고 처리
- 신고자 보호·보상 제도 운영
- 공공재정환수제도 운영

행정심판

- 행정심판제도 총괄·조정
- 행정심판 사건 처리
- 행정심판 국선대리인제 운영

국민소통·제도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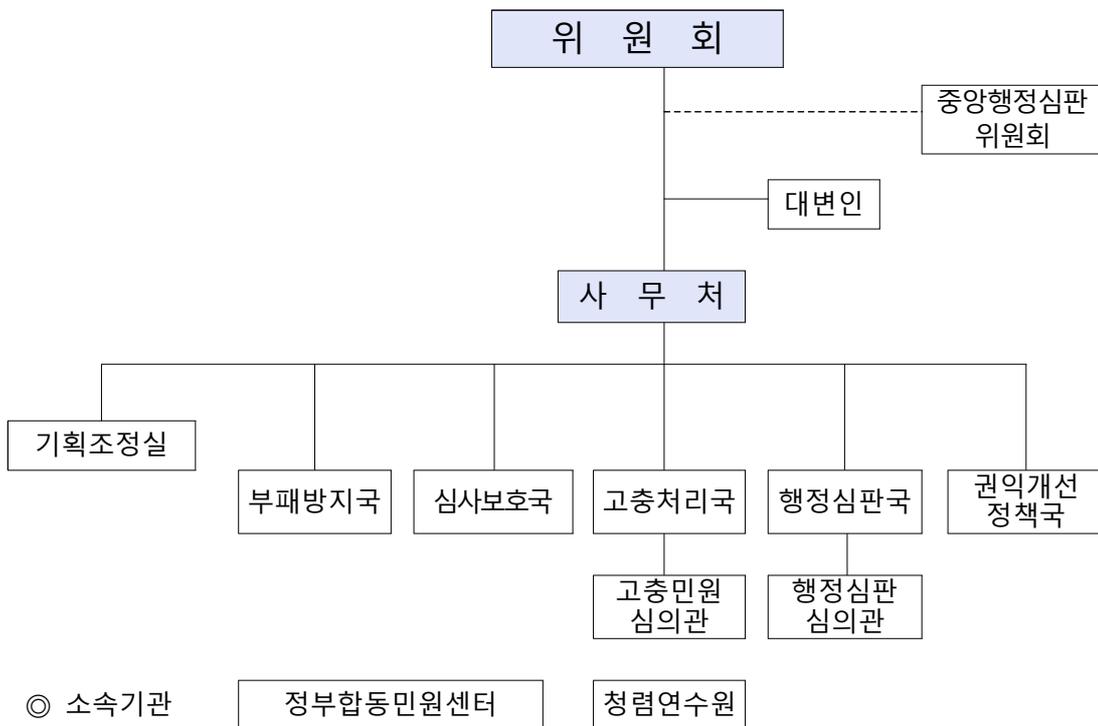
- 부패방지 및 고충해소 제도개선
- 국민소통 창구 운영
(국민신문고, 국민생각함)
- 민원 빅데이터 분석·정책환류
- 정부합동 민원 안내·상담
(국민콜110)

2 조직

○ 위원회 : 15인(위원장, 부위원장 3, 상임위원 3, 비상임위원 8)

※ 중앙행정심위는 위원장(부위원장 1명 겸임) 포함 70인 이내로 구성(상임위원 4인 이내)

○ 사무처 : 1실 5국 2관 1대변인 41과 2소속기관



○ 정원 : 558명('21. 1월말 기준)

(단위 : 명)

계	정무직	고공단	3·4급	4급	4·5급	5급	6급 ~9급	전문 경력관	특정직	연구사
558	4	17	14	35	41	203	233	7	3	1

※ 전문경력관: 비상계획(1명), 국제협력(1명), 전문위원(5명), 특정직: 경찰(3명), 연구사: 기록연구사(1명)

※ 파견인력 : 정원내 파견 50명

3 예 산

○ 총 908억원 : 인건비478억(53%), 기본경비 74억(8%), 주요사업비 356억(39%)

※ 주요사업비 : 35,565백만원

- 청렴권익문화 확산	1,618백만원
- 청렴권익행정정보화	8,861백만원
- 청렴권익대내외협력강화	1,055백만원
- 부패·고충제도개선및소통활성화	10,682백만원
- 국민고충해소	1,625백만원
- 반부패청렴정책강화	10,580백만원
- 행정심판	1,144백만원

4 소관법령

종류	법령명
법률 (5)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공익신고자 보호법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행정심판법
대통령령 (8)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심판법 시행령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무원 행동강령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총리령 (3)	행정심판법 시행규칙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II. 2020년 추진성과

1. 지속적 반부패 개혁 견인으로 국가청렴도 제고

반부패·청렴 수준에 대한 국내외 인식과 평가 개선

- 국가청렴도(CPI) : ('17) 54점, 51위 → ('18) 57점, 45위 → ('19) 59점, 39위 → ('20) 61점, 33위(95년 측정 이래 역대 최고점 최초 30위권 초반 진입)
- 공공기관 청렴도 : ('17) 7.94 → ('18) 8.12 → ('19) 8.19 → ('20) 8.27 (4년 연속 상승)

□ 범국가적 반부패·청렴 정책 추진체계 확립

- 대통령 주재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 운영 및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 이행*을 통해 범정부 차원의 반부패 협력 제도화

* 4대 분야·총 85개 단위과제 주기적 점검 등 이행성과 체감을 위한 종합관리 추진

- 경제·언론·시민사회 등 각계 국민이 참여하는 '청렴사회민관협의회'를 중심으로 반부패·청렴 이슈에 대한 사회적 논의 주도

※ 지자체 정보공개 실효성 제고, 기업 내부감사 실효성 제고 등 정책 제안

- 제19차 국제반부패회의(IACC, '20.12.1~4)를 최초의 온라인 회의로 성공적으로 개최, 프로그램·참가자수 역대 최대로 국제 반부패 논의 선도

* UN, OECD 등 주요 국제기구 수장 참석, 역대 최대 인원인 전 세계 170만 여명 참여

□ 부패방지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법·제도적 기반 강화

- 국민 눈높이 변화에 따라 공직자 행위기준을 강화*하고, 「공공재정 환수법」 시행('20.1월)으로 재정누수 체계적 대응 강화

* 「청탁금지법」 관련 공직자에 대한 부적절한 할인·장학금 혜택 제공 개선('20.8.),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 제정 추진('20.6. 정부안 국회제출)

- 채용비리 근절, 공공기관 사규 개선 등 주요 부패현안에 대한 전면 점검을 실시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확립

※ (채용비리) 1,212개 기관의 '19년 채용실태 점검, 채용비위 83건 적발, 피해자 124명 구제 추진 (공공기관 사규개선) 69개 기관의 8,393개 사규를 전수 점검, 316건의 개선안 권고

2.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신고자 보호제도 마련

- 신고자 보호건수 : ('17) 17건 → ('18) 35건 → ('19) 72건 → ('20) 81건
- 보·포상금 지급액 : ('17) 42억원 → ('18) 55억원 → ('19) 43억원 → ('20) 55억원

□ 신고자 보호·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 확충

- '공익신고' 대상법률을 확대하여 보호의 사각지대 해소('20.11.20 개정·시행)
 - * 공익신고 대상법률 추가(284개→467개)로 보호대상 공익신고자 범위 대폭 확대
- 부패신고자의 신분을 공개한 자에 대한 처벌 강화('20.6.11. 개정·시행)
 - ※ (기존) 3년 이하 징역·3천만원 이하 벌금 → (강화) 5년 이하 징역·5천만원 이하 벌금

□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신고자 보호·보상

- 적극적인 신고자 보호사건 처리('20년, 233건) 및 보호인용률 제고('20년, 58%), 역대 최다 보상심의위원회 개최(11회)로 신속한 보상금 지급

3. 국민중심·현장중심의 권익구제 및 정책소통 추진

- 권익구제('17~'20년) : 고충민원 66,401건, 행정심판 95,189건 처리

□ 국민고충 해소를 위한 적극행정 노력 전개

- 위법·부당하고 소극적인 행정에 대한 고충민원, 행정심판 사건을 적극 해결하여 3,658건의 국민권익 침해 해소
 - ※ 고충민원 시정권고·의견표명·조정합의 2,085건, 행정심판 인용 1,573건('20년)
 - ※ 코로나19 관련 고충·불편 해결을 위한 '국민고충 긴급대응반' 설치·운영('20.9월~)
- 집단민원의 적극적 조정을 통해 사회갈등 해결(총 53건)
 - ※ 강원도 양구군 무주부동산 문제 해결('20.8.), 경주 한센인촌 주거환경 개선요구 해결('20.10.)

□ 개방과 소통으로 국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정책 구현

- 범정부 소통시스템 '국민신문고' 기능 고도화('20.2) 및 민원서비스 품질 제고
- 민원빅데이터 분석·개방, 국민생각함을 통한 소통으로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적극적인 정책 환류로 적극적 제도개선 추진
 - ※ 소상공인 수도·가스요금 한시적 감면·유예('20.6.), 코로나19 민원분석 및 제도개선('20.4.) 등

Ⅲ. 2021년 업무추진 여건 및 방향

1 업무추진 여건

□ 국가 혁신·도약의 토대로서 반부패·공정 기반 강화 필요

- 코로나19 위기 국면에서 확인된 공적 제도의 투명성 및 국민신뢰를 기반으로 반부패 개혁을 완수해 국가청렴도의 획기적 도약을 모색할 시점
- 특히, 고위공직자 등의 권력형 부패 엄단 및 불공정·특권 해소에 대한 국민적 기대에 적극적 대응 필요

□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범정부 비상 체계 가동

- 코로나19의 장기화 속에서 고용·사회 안전망의 사각지대, 코로나 양극화(corona divide)* 등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 역할 절실
 - * 코로나 19로 인한 경제·고용 충격이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 더욱 가중
- 특히, 청년세대는 일자리 감소와 함께 플랫폼 노동·프리랜서 등 비정형 노동 형태 증가에 직면해 **중장기적으로 가장 큰 피해 예상**
 - ※ 국제노동기구(ILO)는 청년층이 팬데믹에 따른 사회·경제적 결과의 주요 희생자로 평생 내내 이어질 상흔을 입어 '락다운(lockdown, 봉쇄) 세대'가 출현할 것으로 예측('20.5월)

□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선도국가 도약을 위한 선제적 대응 추진

- 급격한 인구구조 변동*에 따른 경제·복지·교육 등 사회 전반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선제적·전략적 대책 수립 필요
 - ※ '20년에 최초로 국내 사망률이 출산율을 역전,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추월
⇒ 베이비부머가 고령층에 진입하는 '20년 이후 10년이 대응책 마련의 골든타임
- 세계적인 기후변화와 산업구조 변동에 대비, '2050년 탄소 중립' 달성 및 미래 성장동력 강화를 위해 시대 흐름에 맞지 않는 제도 발굴·개혁 시급

2

업무추진 방향

◇ 반부패 개혁 완수로 국가청렴도 도약의 확실한 계기를 마련하고, 국민고충과 사회갈등의 적극 해결로 범국가적 코로나19 위기 극복 선도

비전

“청렴하고 공정한 대한민국, 국민에게 힘이 되는 권익위”

목표

국가 청렴수준의
확실한 도약

국민이 신뢰하는
신고자 보호제도 운영

국민고충·사회적 갈등
최우선 해결

주요계획	정책과제
① 반부패·공정개혁 체감 성과 창출	■ 부패에 대한 신속·엄정한 대응
	■ 효과적인 부패예방을 위한 공직자 행위기준 정비
	■ 불공정 관행 개선을 통한 공정개혁 체감 제고
② 사회 전 부문의 청렴성 향상 대책 추진	■ 공공부문의 청렴 역량 강화
	■ 청렴교육 확대를 통한 청렴의식 제고
	■ 국가 청렴수준에 대한 대내외 인식도 제고
③ 부패·공익신고 활성화 및 신고자 보호 강화	■ 先 보호·後 검토로 적극적·선제적 신고자 보호 강화
	■ 신고 활성화로 부패·공익침해행위 발생 차단
④ 신속한 고충해소로 국민에게 힘이되는 적극행정 추진	■ 코로나19 시대 국민고충 및 권익침해 최우선 해소
	■ 범정부 국민고충 해결의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
⑤ 국민의 목소리에 기반한 사회갈등 해결 및 제도개선	■ 사회적 갈등과 정책 현안의 주도적 해결
	■ 국민의 참여로 체감도 높은 정책·제도 완성

Ⅳ. 2021년 핵심 추진과제

① 반부패·공정개혁 체감 성과 창출

1 개요

- 국가청렴도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나, 반부패·공정개혁 완수라는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 필요

※ 국가청렴도(CPI) : ('18) 57점, 45위 → ('19) 59점, 39위 → ('20) 61점, 33위

⇒ '22년 국가청렴도(CPI) 세계 20위권 도약을 위한 기반 마련

2 세부내용 및 이행계획

(1) 부패에 대한 신속·엄정한 대응

□ 고위공직자 부패 등 권력형 부패 엄단

- (협업체계 구축) 고위공직자의 부패행위 신고 접수 시 공수처로 고발·이첩하고, 공수처 내부 청렴정책 이행 지원

※ 고위공직자의 부패혐의에 대해 권익위가 직접 고발할 수 있는 기관에 공수처 추가(「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 '20.12.10. 국회 통과)

협업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위공직자 부패신고 사건의 공수처로의 고발·이첩·송부■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과정에서 제도개선 필요사항 확인 시 권익위에 통보토록 협업체계 구축, 구조적 부패에 대한 제도개선 추진
지원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수처 자체 청탁금지·행동강령 제도 운영 지원·감독■ 소속 공직자 부패방지 의무교육(연 2시간) 이행 관리

- (집중신고 기간 운영) 고위공직자 부패 등 권력형 부패에 대한 부패신고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집중신고기간 운영(1~4월)

□ 부패현안에 대한 신속·적극적인 대응 강화

- (현안 대응) 사회적 이슈가 되는 부패 현안 발생 시 정책수단 및 가용인력을 총동원한 즉시 대응체계 가동, 실태점검 및 개선안 마련



※ 국민적 관심이 큰 부패현안의 경우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를 통해 실태 점검 결과 및 관계기관 합동 개선대책 발표 추진

- (사실확인 기능 보완) 피신고자 등에 대한 사실확인 기능 보강을 통해 신고 사건에 대한 대응력 강화, 신고사건 처리의 실효성 제고
 - * 피신고자, 관계기관 등에 진술청취·자료제출 등 요구(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 국회제출, '20.6.)

□ 지자체·공공기관 부패관행 개선을 위한 고강도 대책 추진

- (취약분야 집중점검) 지방 현장에서 부패가 빈발하는 취약분야*를 발굴하여 집중적 실태점검을 실시(격월), 고질적 부패관행을 개선
 - * (예시) 민간위탁 업무에 공직자 재취업으로 인한 관리·감독 부실, 공무원 특혜채용 등
- (공공기관 사규 점검) 공공기관 사규 전수점검 3개년 계획('20~'22)에 따라 기금관리형·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99개) 사규 부패영향평가 실시
 - ※ 민간과의 계약·위탁 등에서 직권·재량남용, 소극행정 유발 요인 중점 점검·개선
- (평가 확대) 대국민 접점인 지방자치단체, 지방공사·공단, 지방의회에 대한 청렴수준 및 반부패 노력도 진단·평가 강화
 - ※ 소규모 기초의회와 주민생활 밀접 지방공사·공단(철도·교통시설관리 등) 청렴도 측정 확대, 부패방지시책평가 대상 기초지자체 확대('20년: 인구 50만 이상 → '21년: 40만 이상)
- (행동강령 이행 강화) 행동강령 조례 미제정 지방의회(13개) 대상 조속한 제정 촉구, 전국 지방의회 의장단 대상 행동강령 교육* 실시
 - * (주요내용) 수의계약 체결 등 선출직 공직자 위반 빈발 행위, 지방의원의 부적절한 겸직 및 소관 상임위 활동 관련 이해충돌 사례 중심

(2) 효과적인 부패예방을 위한 공직자 행위기준 정비

□ 이해충돌방지제도의 조속한 입법화

- (입법 추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20.6. 국회제출)」의 조속한 제정을 위해 국회 법안심사 적극 지원, 쟁점해소를 위한 선제적 대응
 - ※ 쟁점사항에 대한 실태점검 및 사례분석, 주요 쟁점사항에 대한 정부안 보완 필요사항(예 : 고위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 신고 및 회피방식)은 의원입법 지원
- (공감대 확산) 입법 필요성에 대한 국민 공감대 확산을 위해 인터뷰, 기고, SNS 홍보 등 온·오프라인 매체를 활용한 다각적 홍보 전개

□ 청탁금지법 규범력 강화 및 사각지대 해소

- (사각지대 입법 완비) ①부정청탁 금지 대상직무 추가, ②공직자의 민간 부문 청탁 금지 등 법 미비점 보완을 위한 개정 추진
- (과태료 부과 누락 등 개선) 청탁금지법 위반행위에 관한 과태료 부과 업무를 권익위가 담당하도록 법 개정 추진
 - ※ 현재는 소속기관장이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함에 따라 유사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여부 및 액수 등에 차이 발생
- (실태점검 강화)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관련 이슈, 공직자등에 제공되는 특혜 등 부적절 관행에 대한 지속적 실태점검 및 개선안 마련
 - ※ (예) 학교 촌지·불법찬조금 수수, 직무 관련 공직자등에 휴양시설 이용 특혜 제공 등

□ 비위면직자 취업제한제도의 실효성 강화

- (사전심사제 도입)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여부 사전확인 의무화 및 '비위면직자 취업심사위원회' 설치 추진 검토(「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
 - ※ 법 개정 전이라도 위반자 발생 방지를 위해 각급기관의 사전 취업심사 요청 시 '취업제한 자문위원회'를 통한 검토의견 제시 등 적극 지원
- (관리 사각지대 개선) 비위면직자 발생시 권익위에 관련 자료 제출 및 공공기관 직원 채용 시 비위면직자 확인을 의무화해 위반자 발생 방지

(3) 불공정 관행개선을 통한 공정개혁 체감 제고

□ 공공재정 부정청구 근절로 재정누수 방지

- (합동 점검단 구성) 코로나19 지원금 등 확대에 따른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해 '정부합동 점검단'을 구성, 부정청구 취약분야 집중 점검(2~12월)
- (부정청구 통합관리 시스템) 기관별 공공재정 현황 및 부정청구에 대한 환수금액, 환수율 등 자료를 시스템으로 관리, 대국민 공개(3월~)
 - ※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에 공공재정 부정청구 통합관리 기능을 탑재, 운영
- (적용대상 확대) 공공재정환수법 적용대상에 공공계약까지 포함 되도록 하여 공공재정환수제도의 사각지대 해소, 실효성 확보
 - ※ 정책연구용역 실시(2~6월), 법 개정안 마련·국회 제출(12월 예정)

□ 제도 속에 내재된 구조적 부패·불공정 유발요인 개선

- 정부의 신뢰성을 저해하는 구조적 부패·불공정 유발요인을 발굴·개선 하고, 공동체 가치를 훼손하는 국민 일상 속 불공정 해소

분 야	개선과제(예시)
불합리한 관행·유착	-군납계약의 경쟁입찰 확대 등 폐쇄지역에서의 특혜·독점 및 이해충돌 방지 -하도급 계획서 사전심사 도입 등 관급공사 감리제도 불공정 개선
재정집행 실효성 제고	-정책자금 중복·반복지원 방지, 부실 심사 및 감독 방지 등 관리 강화 -재량사업 내역 공개 의무화 등 지방의원 포괄사업비 투명성 제고
일상 속 불공정 개선	-시설면적·설립요건 강화 등 요양원·요양병원 공공성 강화 -적격심사 보완, 불법행위 등록기관 통보 등 공동주택 비리 방지

□ 채용비리 근절대책 지속 추진으로 공공기관 채용 공정성 향상

- (정기조사) '20년 공공기관 채용실태 전수조사 추진('21년 중, 1,516개 기관), 신규채용·정규직 전환과정의 비위, 제도개선 이행실태 등 중점 점검
- (수시점검) 채용 요건 일방변경, 채용 특혜 발생 등 채용 공정성을 저해하는 현안 발생 시 신속한 현장점검 및 즉시 조치 해결

2 사회 전 부문의 청렴성 향상 대책 추진

1 개요

-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선도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해 반부패·청렴 문화의 확실한 정착으로 지속가능한 성장동력 확보 필요
 - ※ 한국의 국가청렴도 10점 상승시 1인당 GDP 성장률은 0.5%p 증가(서울대, '17.12월)
- ⇒ 범정부 차원의 청렴정책 추진을 넘어, 미래세대 청렴인식 제고 및 기업 등 민간분야의 공정성 확산을 위한 중장기 전략 필요

2 세부내용 및 이행계획

(1) 공공부문의 청렴 역량 강화

□ 반부패 정책의 범정부적 총괄·조정 강화

- (반부패 총괄기구 위상 재정립) 위원회 조직을 부패방지 중심으로 개편하고, 반부패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 국회 통과에 역량 집중
 - ※ 관련 「부패방지권익위법」, 「행정심판법」 개정안 국회 정무위 계류중('20.6. 정부안 제출)

< 주요 내용 >

- (조직 개편) 조직을 부패방지 기능 중심으로 재편하고 기관명칭을 '부패방지 국민권익위원회'로 변경,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소속 변경(권익위 → 국무총리, 법제처장이 중앙행정심판위원장 겸임)
 - (부패신고 사실확인 기능 보완) 신고사건의 이첩·고발 등을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피신고자, 관계기관 등에 대한 진술청취 및 의견·자료제출 요구 기능 명시
 - (반부패 민간협력 강화) 국무총리 훈령으로 규정된 청렴사회민관협의회 설치·운영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여 반부패·청렴 정책 추진 시 국민참여 활성화
-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 국민적 관심이 큰 부패·불공정 현안 또는 구조적 부패취약분야에 대한 '범정부 상시대응체계'로서 역할 강화
 - ※ 부패취약분야 개선을 위한 기획과제 발굴 및 현안이슈 신속대응을 위해 실무협의회 활성화 (현안발생 시 수시 운영)

- (감사관회의 확대) 이슈별·계기별 감사관회의 운영 확대로 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반부패정책에 점점을 강화하고, 부패대응 역량 강화

□ 청렴수준 평가제도의 객관성·신뢰성 제고

- (청렴도측정) 청렴도측정 제도('02년~) 도입 20주년 계기, 국민이 공감하고 공직자가 변화할 수 있는 제도로의 개편 추진
 - ※ 측정 실효성에 따라 측정주기를 다양화 하는 등 대상기관 재검토, 부패취약업무 신규 측정, 부패사건 현황 등 객관적 지표 강화 방안 등 검토
- (부패방지시책평가) 기관장·고위직의 반부패 노력도 평가를 강화하고, 부패 현안 발생 시 대책마련·시행 여부를 가감점으로 반영

(2) 청렴교육 확대를 통한 청렴의식 제고

□ 청렴교육의 전방위적 확대를 통한 사회전반의 청렴의식 제고

- (선출직 공직자) 지자체장 등 선출직 공직자의 청렴리더십 향상 및 청렴역량 개발을 위한 교육콘텐츠 개발·제공 등 청렴교육 지원 확대
 - ※ 행안부 등 관계부처, 지방의회와의 MOU체결, 간담회 등을 통해 청렴교육 협의·지원
- (고위공직자) 장·차관 등 중앙부처 고위직 대상 이해충돌, 갑질 등 사례중심의 청렴교육 자료 제작 및 청렴연수원 교육이수 확대
 - ※ 기관장의 사적이해관계 신고방법, 직무관련자의 범위 등 고위직 맞춤형 사례 교육 자료를 제작하여 활용
- (他교육훈련기관) 전체 공공 교육훈련기관(총 112개 기관)의 교육과정 또는 교육과목에 청렴교육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확대 추진
 - ※ 청렴교육과정을 단독과정으로 운영 또는 타 과정에 청렴과목 편성토록 협의(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주관 '민관 교육발전협의회'를 통해 단계적 확대 추진)
- (미래세대) 향후 교육부 교육과정 개정에 대비하여 초·중등 교과과정 또는 자유학기제에 연계한 청렴교육 확대 방안 마련
 - ※ 현재는 초·중·고등학교 대상 청렴교육은 '민주시민 교육'의 일부 소단원으로만 구성

□ 청렴교육의 법적·제도적 인프라 공고화

- (교육 이행력 확보) 기관별 부패방지교육 이수현황 등 결과공개 근거, 교육 부실기관에 대한 관리자 특별교육 등 후속조치 근거 신설
- (청렴교육 확산 기반 마련) 학생·일반국민 대상 청렴교육 실시 근거 등 교육확산 기반 마련, 청렴교육 강사 양성 및 관리체계 마련 등
※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 또는 「청렴교육지원법(안)」 제정 등 방안 검토 및 추진
- (청렴교육 전문성 강화) 청렴교육정책 및 청렴콘텐츠 연구·개발 전담부서 신설, 교육시설 증축 등 교육운영 여건 개선 추진

(3) 국가 청렴수준에 대한 대내외 인식도 제고

□ 국가청렴도(CPI) 제고를 위한 전략적 대응

- (전략적 대응) CPI 평가 시 우리나라의 실제 청렴수준이 평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평가체계 관련 의견(객관적 실태지표* 추가)을 II에 제시
* 국제예산협의회(IBP) 예산투명성 지수, TRACE International의 뇌물 매트릭스 등
- (IACC 성과 홍보) 제19차 국제반부패회의(20.12월) 개최 성과를 G20, OECD 등 협의체를 통해 국제사회와 공유하여 CPI 제고 계기로 활용
※ IACC 회의 내용과 성과, 온라인화상회의 운영 노하우를 포함한 영문백서 제작·홍보
- (반부패 우수사례 전파) 대외신인도 제고를 위해 외국 기업인 및 평가기관 관심분야를 중심으로 반부패 정책성과 및 우수사례 홍보
※ (예시) 코로나19 대응 등 K방역 성과, 청탁금지법 및 공익신고자보호법 운영 성과 등

□ 국민과 함께 민간분야 청렴문화 확산

- (청렴사회민관협의회) 국민의 시각에서 관심도가 높고 사회적 영향이 큰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 반부패 의제 공론화 기능 강화
* (예시) 대학입시 투명성·공정성 제고를 위한 정보공개 강화, 민간위탁 투명성 제고 등
- (윤리경영)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윤리경영 교육을 확대 하고, 민간단체의 창의적이고 다양한 반부패프로그램 발굴·확산

③ 부패·공익신고 활성화 및 신고자 보호 강화

1 개요

- 신고자보호 관련 법·제도를 강화시켜 나가고 있으나, 국민 눈높이에서는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여건 조성 필요
 - ※ 신고자 보호사건 처리 과정에서 신분공개, 처리절차 지연 등 보호·보상의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국회, 언론 등의 지적
- ⇒ 신고자를 보다 적극적, 선제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법·제도의 획기적 개선 추진

2 세부내용 및 이행계획

(1) 先보호-後검토로 적극적·선제적 신고자 보호 강화

□ 신고자에 대한 신속하고 실질적인 보호 강화

- (불이익조치 일시정지 제도 보완·확대) 부패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 절차 일시정지 요건을 완화*하고, 공익신고에도 제도 도입

*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 방향

현행	개정안
신고와 불이익조치 사이 인과관계 필요	일시정지 결정시에는 고려하지 않음
정지기간 최대 45일	신분보장등 조치 결정이 있을 때까지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 '결정을 기다릴 시간적 여유 없음' 필요	해당 요건 삭제

- (사전보호 전담제) 잠정적 보호조치가 필요하거나 급박한 신변보호요청 등이 있는 경우 사전보호 전담 직원 지정·운영

- (신고자 신속 보호) 신고자·협조자에 대한 신분 비밀보장의무 위반 조사 시 신속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조사 범위 확대* 및 제재규정(과태료) 신설
 - * (부패신고) 현행: 관계기관 → 개선: 관계기관·단체·기업, 참고인 등
 - (공익신고) 현행: 공익신고 접수기관 → 개선: 관계기관·단체·기업, 참고인 등

- (신분공개 피해 방지) 신고자 동의 없이 신분이 공개·보도된 경우, 피해확대를 막기 위해 위원회의 관련 기사 게재중단 등 요청 근거 신설
 - ※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이행 하는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

□ 신고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확대

- (구조금 지원 확대) 해고 등의 원상회복 관련 소송뿐만 아니라 무고·명예훼손 등 신고로 인한 모든 소송에 대해 구조금(변호사비용 등) 지급
 - *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안 국회제출('20.12.28.)
- (보상금 신청기간 연장)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신청 기간을 현행 '관련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음을 안 날부터 2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연장
 - ※ 현재 '부패신고'는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음을 안 날부터 3년 이내에 지급 신청 가능

□ 신고자 보호결정의 이행력 강화

- (이행절차 간소화) 권익위의 신고자 보호조치결정을 미이행한 자에 대한 신속한 제재를 위해 이행강제금 부과절차 간소화
 - * 이행강제금 부과 관련 위원회 심의절차를 2회에서 1회로 축소
- (이행력 확보) 보호조치결정 미이행자에 대한 명단공표 근거를 신설 하고,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을 상향
 - * (현행) 매년 2회, 이행 시까지 회당 최대 3천만 원 → (개선) 회당 최대 1억원
- (징계제도 개선) 중앙부처·지자체·공직유관단체 대상 신고자 보호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기준 마련 여부 실태조사 후 징계제도 개선 권고
 - ※ 실태조사(2~5월), 개선안 마련 및 관계 기관 협의(6~8월), 개선 요청(9월)

(2) 신고 활성화로 부패·공익침해행위 발생 차단

□ 집중신고 기간 운영 및 사례홍보 강화

- (집중신고기간 운영) 시기별 집중신고기간 운영을 통해 부패·공익 침해행위 등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부패·공익신고 활성화

분야(예시)	신고대상	시기
권력형 부패	고위공직자 부패행위 등	1~4월
정부보조금	코로나-19 지원금, 연구개발비, 지방보조금 등	3~5월
신규 공익침해행위	병역법, 대리점법, 수입식품법, 부동산거래신고법 등 위반 행위	5~6월
안전 분야	건설 자격증 불법대여, 부실공사, 소방시설 미비 등	9~10월

* 현안이나 이슈가 되는 사안 발생 시 집중신고기간을 추가하는 등 탄력적 운영

- (사례홍보 강화) 중요사건 조사결과, 신고자 보호제도 위반 처벌사례, 고액 보상사건 등 홍보를 통해 부패·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인식 제고
※ 신고사건 처리 과정에서 발견된 불합리한 제도에 대한 개선의견 제시 병행

- 부정수급에 대한 경각심 제고를 위해 유가보조금 등 주요 부정청구 사례 관련 보도자료 배포, SNS 홍보 실시

* 어린이집연합회(보육보조금), 화물자동차 운송사업협회(유가보조금) 등 공공재정 수급 직종별 협회·단체 대상 교육·홍보자료 제작·배포

□ 공익신고자보호법 제정 10주년 계기 사회적 인식 제고

- (토론회 개최) 법 시행 10년 성과분석 및 제도 발전방안 모색을 위해 연구용역 및 토론회를 통해 학계·언론·시민사회 등 의견수렴 추진
* 법 시행 10년간의 제도 운영성과 분석, 공익신고 대상 및 내부신고자 보호 확대 재설계 방안 등 검토

- (우수사례 선정) 법 시행('11.9.30.) 이후 '세상을 바꾼 10대 공익신고, 보·포상 사례(가칭)' 선정·발표 통해 공익신고에 대한 인식변화 유도
※ (선정방법) 각급기관·시민단체 신청을 받아 국민생각함을 활용하여 선정

4 신속한 고충해소로 국민에게 힘이 되는 적극행정 추진

1 개요

-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악화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사회적 약자,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의 민생안정을 위한 다각적 노력 요구
 - ※ 통계청 조사결과, 코로나19 이후 '임금이 줄었거나 일자리를 잃은 경우'가 응답자의 절반인 49.7%에 달함(한국의 사회동향 2020, '20.12.)
- ⇒ 권익위의 기능과 역량을 결집해, 민생 현장과 사회적 약자 중심의 권익구제로 국민고충 최우선 해결

2 세부내용 및 이행계획

(1) 코로나19 시대 국민고충 및 권익침해 최우선 해소

□ 소외·취약계층 고충해소 및 긴급 고충현안에 대한 대응 강화

- (이동신문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이 큰 소외지역과 취약계층의 신속한 권익구제를 위해 지역형·맞춤형 이동신문고 전방위적 확대 운영

< '21년 이동신문고 운영 방안 >

유형	대상	운영	횟수
지역형 이동신문고 (소외 지역)	· 전통시장, 관광지, 다중이용시설 밀집지 등 코로나19 피해 심각지역 및 농·산·어촌 등	· 긴급 생활자금 지원 등 코로나 관련 고충 중점 청취·해결	· ('20) 33회 → ('21) 40회
맞춤형 이동신문고 (취약 계층)	· 쪽방촌, 노후 임대아파트 등 복지·주거 취약계층	· 고용·사회안전망 사각지대, 열악한 주거환경 등 관련 고충 상담·해결	· ('20) 45회 → ('21) 64회

⇒ 코로나19로 인한 민생 위기 조기 극복을 위해 '찾아가는 현장 신문고'를 '20년 78회에서 '21년 104회로 대폭 확대(33.3%↑)

- (기업고충 해소) 중소기업 밀집지역 대상 '기동해결 특별컨설팅' 운영 및 소상공인·자영업자 고충 청취로 위기 기업 맞춤형 고충해소 추진
 - * (대상) 자동차 부품, 기계 소재 등 소재·부품·장비 관련 산업·농공 단지 등
 - (내용) 영업정지, 공장설립신청 반려 등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민원 상담·해결
 - (운영) 기동해결 특별컨설팅 12회, 소상공인·자영업자 간담회 10회(총 22회)
- (고충현안 긴급대응) 대규모 인명·재산 피해*나 코로나19 등으로 단기간에 현장민원 급증 시 '국민고충 긴급대응반' 운영 등 즉각적 해결 체계 가동
 - * 태풍·집중호우, 산불·대형화재, 화학물질·환경오염 등 각종 사건·사고

□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신속·공정한 행정심판 운영

- (국선대리인 지원 확대) 국선대리인 신청 소득기준 완화(270만원→300만원), 코로나19 피해가 큰 소상공인*도 지원, 국선대리인 수 확대(70명→100명)
 - * 일정 매출액 이하 소상공인을 '경제적 능력으로 인하여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포함하여 지원(「행정심판법 시행령」 제16조의2)
- (신속성·인용률 제고) 단순·반복적 심판청구의 재결기간을 단축하고, '위법' 뿐 아니라 소극행정 등 '부당'한 처분에 따른 권익침해도 적극 인용

□ 다양하고 전문적인 사건에 대응하기 위한 행정심판위원풀(Pool) 확대

- (전문인력 보강) 현행 비상임위원에 환경·산업·노동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추가 위촉 추진(65명→150명)
 - ※ (참고)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는 150명의 비상임위원을 위촉·운영
- (사건 검토 강화) 복잡한 전문사건 증가 추세에 대응하고, 심도있는 사건 검토를 위해 상임위원 증원(3명→4명, 행정심판법은 4명 이내로 규정)
 - ※ 중앙행심 상임위원 3명(1인당 연평균 6,174건, 5개년 평균), 조세심판원 상임심판관 8명(1인당 연평균 1,442건), 소청심사위원회 4명(1인당 연평균 199건)으로 구성

(2) 범정부 국민고충 해결의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

□ 국민신문고·110콜센터를 통한 대국민 민원·상담서비스의 책임성 강화

- (이용기관 확대) 지자체·사립대 민원처리기능의 국민신문고 통합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대국민 원스톱 민원서비스 제공

※ (지자체) 71.2%(171/243) 통합('20.12. 기준), 10개 지자체 추가 통합('21.상)
(사립대) 5개 대학 시범운영('20.12.~), 328개 전체 사립대 민원기능 통합('21.하)

- (소극행정 예방강화) 소극행정신고센터 접수 민원*의 유형, 빈발 분야, 발생원인, 처리실태 등을 종합 분석해 예방대책** 수립

* '19.3. 소극행정 신고센터 개설 이후 접수된 6만여건 중 각 기관 감사실에서 소극행정으로 판단한 건은 약 2%(1,240건)에 불과, △유형별 판단기준 확립 필요

** 발생원인(제도미비, 관행, 업무행태 등)에 따라 제도개선, 교육, 컨설팅 등 실시

- (민원서비스 개선) 이송사유 등 '민원이력 조회기능'을 신설('21.3.)해 처리 회피·지연을 방지하고, 끝까지 책임지는 '민원 정책알림 서비스* 제공(~'21년말)

* '민원 관련 정책알림 서비스' 개요

- (필요성) 민원은 법령에 따라 7~14일 이내에 답변·종결 처리되나, 이후 실제 민원과 관련된 제도·정책 변경 등 실질적 조치는 피드백이 되지 않는 한계
- (주요내용) 민원 신청 내용과 관련된 정책·제도의 개선사항, 추진현황 등 정책정보를 수집해 SNS·이메일을 통해 민원인에게 자동 제공

- (지능형 통합콜센터 구축) 96개 정부 콜센터 시스템을 통합하여, 빅데이터 활용·AI자동상담을 통해 24시간×365일 중단없는 상담 서비스를 제공(~'23)하고, 범정부 안내시스템 '국민비서'와도 연계

< 추진 일정 및 예산(총 298억, 2개년) >

'22년 1차 구축(180억) 클라우드 기반 콜센터 시스템 통합 안정화 (부처, 소속기관 등 41개)	→	'23년 2차 구축(118억) AI도입 등 기능 고도화, 시스템 통합 확대 (부처, 산하기관 55개)
--	---	--

* '20년 BPR/ISP(7.1억) 및 75개 정부 콜센터(통합대상 96개 중 78.1%) 동의 완료

□ 권익위의 전문 ombudsman 제도 활성화로 고충해결의 사각지대 해소

- (경찰ombudsman 내실화) 검·경 수사권 조정 등 변화된 수사 환경에 대응하여 적극적 ombudsman 역할* 수행

※ 경찰분야 민원 접수 현황 : '18년, 733건 → '19년, 1,579건 → '20년, 1,784건

* 불합리한 수사절차·행태 등에 대한 시정권고 및 의견표명 적극 처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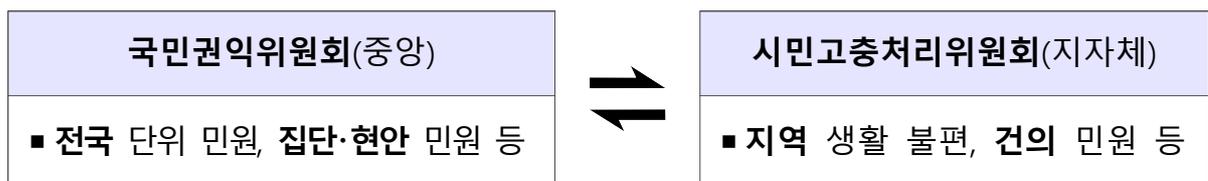
- (검찰ombudsman 도입) 검찰의 위법·부당한 수사 절차·행태 등과 관련된 고충민원 처리 추진

※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 제17조 소위원회의 업무범위에 검찰을 포함하는 내용의 개정 추진중('20.11월 입법예고 완료, 법무부 등 관계부처 협의중)

- (빈발민원 분야 역할 강화) 기업, 금융 등 국민적 요구가 높거나 고충민원이 증가해 특별 관리가 필요한 분야에 대해 고충처리 역량 집중

□ 중앙(권익위)-지방(지자체) 간 분업·협력을 통한 촘촘한 고충 해결

- (분업) 국민권익위원회-시민고충처리위원회(지자체)가 민원 특성에 따른 처리영역 전문화로 고충민원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해결



※ 분업 표준모델을 개발해 우수 운영 지자체(울산광역시, 경기 파주·시흥시 등)와 시범운영 실시('21.상) 후 전국 확대 추진

- (지원·협력) 지자체별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확대를 지원하고, 중앙-지방 간 일관성 있는 고충민원 처리를 위한 교육·컨설팅* 확대

* 고충민원 처리역량 교육 제공, 신설 예정 지자체에 대한 조례제정·운영 컨설팅 등

5 국민의 목소리에 기반한 사회갈등 해결 및 제도개선

1 개요

- 정책의 전 과정에 대한 투명한 공개와 직접적 국민 참여 요구가 높아지는 가운데, 본격적인 '비대면 시대'가 도래하면서 온라인 소통 창구에 제기되는 국민의 목소리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

※ (국민신문고 민원) '18년, 473만건 → '19년, 799만건 → '20년, 957만건
(국민생각함 참여) '18년, 16만회 → '19년, 23만회 → '20년, 35만회

⇒ 범정부 정책 소통·참여 플랫폼 국민신문고, 국민생각함을 통해 아래로부터 민원과 고충을 수렴하여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제도 구현

2 세부내용 및 이행계획

(1) 사회적 갈등과 정책 현안의 주도적 해결

□ 집단민원 중점 해결 및 집단민원조정법 조속 제정

- (집단민원 해결) 다수기관이 관련돼 민-관, 민-민 갈등이 장기간 해결 되지 않고 표류중인 집단민원을 중점과제로 선정해 해결방안 마련

- 특히, 100인 이상이 관련된 집단민원은 원칙적으로 지자체 등에 이송하지 않고 권익위가 직접 조정 추진

※ '20년 한 해 총 8,447건의 집단민원이 제기(중앙부처 1,206건, 지자체 7,059건), 이 중 100인 이상 집단민원은 1,837건(21.7%)

※ 전국 빈발 집단민원 사례

- 신도시 생활기반시설 미설치로 인한 입주 후 생활불편
- 무단폐기물 투기에 대한 토지소유자 대상 처리비용 전가
- 전국 한센인촌 주거·환경 사각지대 개선 등

- (법제화) 사회 갈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집단민원을 객관적·전문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인 「집단민원조정법」 조속 제정

※ 「집단민원조정법안」 2건 정무위 계류중

< 집단민원조정법안 주요내용 >

- (조정 전문인력 확충) 민간 조정전문가, 전문직 종사자 등을 조정인으로 위촉해 일정 규모 이상의 집단민원(100인 이상)을 전담 조정 해결
- (조정 대상 확대) 민원인뿐만 아니라 행정기관도 권익위에 소관업무와 관련한 집단민원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권한 부여
- (선제적 집단민원 대응) 긴급하고 사회적 파급효과가 크다고 인정되는 사안은 민원신청 전이라도 실태를 확인, 조정 절차에 착수하여 분쟁·갈등 확산 방지

□ 주요 현안민원에 적극 대응

- (현안민원 해결)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다수부처 관련 민원, 중대 현안 민원 등은 신속히 조정·해결하여 갈등 확산 사전 차단
- 조정이 완료된 이후에도 기관별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미이행 시 언론공표, 국무·차관회의 보고 등을 통해 이행력 확보

※ '21년 처리예정 주요 현안 민원

- 포항 수성사격장 주한미군 헬기사격 반대 및 사격장 폐쇄
- 완공 후 미사용 통영 소매물도·제승당·비진외항 3개 여객터미널 운영 정상화
- 전국 지하차도 침수사고 예방 대책 마련 등

(2) 국민의 참여로 체감도 높은 정책·제도 완성

□ '국민생각함'을 통한 정책참여 활성화

- (열린 공론의 장 운영) 주요 정책이슈·갈등현안을 적시에 포착해 국민생각함 토론회로 제시하고, 수렴된 국민의견에 기반한 정책 변화 유도

※ 온라인(국민생각함 토론·설문조사) - 오프라인(간담회·현장 의견청취) 동시 대응을 통해 현안별로 다양한 국민 의견을 균형 있게 수렴·분석해 정책제안 실시

< 국민생각함 기획토론 과제(예시) >

- (환 경) 2050 탄소중립 추진 협업(수소충전소 구축 전략 수립 등)
- (복 지) 시각장애인 안내견 출입 확산 등 장애인 이동권 보장
- (과학기술) 코로나 시대 온라인 소외계층 보호(디지털 포용 정책)
- (노 동) 특수고용근로자 등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
- (생 활) 한부모 가족 아동 양육비 이행 강화 등

- (정책환류 강화) 국민이 참여·공감하면 권익위가 개선하는 ‘국민 생각을 제도개선으로, 권익위가 바꿉니다’ 프로젝트 추진
 - 제도개선 권고가 아니더라도, 조속한 정책 반영 및 기관 자율 개선을 위해 현안과제에 대한 정책제안 제시
- (참여 방식 다양화) 청소년·대학생 참여 프로그램, 사회현안 관련 찬/반 설문 및 공공캠페인 등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획 확대
 - ※ (청 소 년) ‘국민생각함, 청소년·청년 정책개선 아이디어 공모전’ 실시
 - (대 학 생) ‘국민생각함,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대학생 정책참여’ 전국 확대
 - (일반국민) ‘사회현안 3초 공감(찬/반, 택1 등)’ 이벤트, 공공캠페인 추진 등

□ 민원 빅데이터 분석·활용을 통한 데이터 기반 행정 선도

- (기획분석) 사회안전망 강화, 포스트 코로나 및 2050 탄소중립 등 국정 방향 관련 데이터 분석으로 체계적 정책 추진 지원

< 민원분석 주제(예시) >

분 야	분석 주제
사회안전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정 내 아동학대 등 취약·소외계층 보호 ▸ 실업급여·긴급생활안정자금 등 경제적 약자 지원
포스트 코로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드라이브 스루, 배달앱 등 비대면 소비문화 관련 ▸ 초등돌봄(방과후수업·돌봄교실 등) 운영 개선
탄소중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전기·수소차’ 이용 불편 개선 ▸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 관련

○ (데이터 개방 확대) 국민(산·학·연)이 민원 데이터를 직접 분석해 각종 연구·개발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원격 민원분석 플랫폼' 구축 추진

※ '21년 : 민원 빅데이터 원격분석플랫폼 구축 정보화 전략계획(BPR/ISP) 수립 → '22년 : 플랫폼 시범 운영 → '23~'24년 : 플랫폼 고도화 등 확대·활성화

○ (데이터 연계 강화) 민원 데이터와 주요 공공데이터 간 융복합*, 학계·전문기관과의 공동연구** 확대 등을 통해 국민 삶의 질 개선에 기여

* 국민건강(복지부), 자동차(국토부 등), 소비자안전(공정위), 인구(행안부), 사회보장(복지부), 음식물·쓰레기(환경부) 등 국민생활 관련 데이터

** (예시) 포스텍 사회문화데이터사이언스 연구소와 업무협약 체결('20.6.)

□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및 실질적 이행력 제고**

○ (제도개선 강화) 코로나19로 인한 민생경제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4대 안전망 강화, 사회·경제적 구조 전환** 대응관련 정책·제도 적극 개선

< 제도개선 주제(예시) >

분 야	문제점	개선과제(예시)
4대 안전망 강화	<생 계> · 공공기관이 장애인 의무고용 대신 세금으로 부담금 납부 · 청년공제 재가입 불가로 불리한 근로조건 감내	⇨ 의무고용률 평가 확대 등 장애인 고용 촉진제도 실효성 제고 ⇨ 재가입 요건 확대 등 청년내일채움공제 공정성 제고
	<의 료> · 최저보험료 체납자 건강보험 압류, 분할납부 승인 취소 · 장기기증 부족으로 인한 의료비용 증가 및 불법거래	⇨ 압류 예외요건 확대 등 건강 보험료 체납자 반복민원 해소 ⇨ 장기기증자 건강검진 확대, 예우 강화 등 장기기증 사후관리 개선
	<주 거> · 주택 매매가·전세가 상승으로 인한 중개수수료 부담 가중 · 임대주택 입주에 필요한 소득기준 등 자격기준 불합리	⇨ 거래금액별 보수요율 산정 등 주택 중개보수 산정체계 개선 ⇨ 자격기준 현실화 등 청약·공공 임대주택 공급 관련 불합리 개선

분 야	문제점	개선과제(예시)
	<교 육> · 초등돌봄교실 법률근거 미비로 안전 문제, 프로그램 질 저하	⇒ 법률근거 마련, 부처별 연계 강화 등 초등 돌봄교실 운영 내실화
사회 변화 대응	· 라이브커머스는 '방송'에 해당하지 않아 허위광고 심의불가	⇒ 심의기준 마련, 플랫폼 책임강화 등 라이브커머스 소비자 보호
	· 태양광 발전 설치 관련 지자체 입지규제 국민고충	⇒ 태양광 발전 설치·운영 관련 불필요한 규제 개선
	· 안전을 위협하는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의 단속방안 모호	⇒ 지자체 등록, 인식표(번호) 부착 등 개인형 이동수단 안전 강화

○ (이행력 제고) 제도개선 권고 사항이 신속히 이행되어 국민들이 개선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이행현황 상시 점검체계'* 구축

* ①(언론보도 등 문제포착) 권고 미이행, 부패·고충 지속발생 → ②(권익위) 이행조치 요구 → ③(소관기관) 조치계획 제출 → ④(권익위) 이행점검 → 우수사례 홍보

※ '20.6월 기준 제도개선 이행률은 83.9%로, 이행미흡 과제에 대해서는 국무·차관 회의 보고, 현안점검조정회의 등을 통해 이행력 제고 노력 강화